

한국인의 '원형' 찾아 학문뻗길 삼십년

《한국민속과 문학연구》부터 《한국신화와 무속연구》까지

김열규

인제대 교수 · 국문학

그것은 찾음이었을까? 아니면 방향이었을까? 아니면 번덕이었던 말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마도 끝내 알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가령, "사람은 구하는 한 방향한다"고 한 괴테의 그럴듯한 경구를 아예 내 것으로 횡령하고 싶지만 그것도 쉬울 것 같지 않다. 내 모든 방향이 가령 정체(停滯)나 회의(懷疑) 그리고 머뭇머뭇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끝내 순종의 구함(求)이요 탐색(探索)이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워낙 산책을 즐기긴 했지만 그간의 오락가락을, 그 사이의 뒤뚱뚱을 죄 학문적 산책이라고 말하면 그게 지나친 미화인 게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다.

아무튼 그동안, 줄잡아서 삼십년 정도는 될 기간의 나의 학문의 뻗길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좌초다. 파선할 위험성은 매우 높다.

문학에서 민속학·신화학으로

문학공부를 한답시고 하다가 어름어름 하다가는 어느새, 민속학과 신화론을 하게 되었다. 시를 쓰겠다는 초발심(初發心)으로 대학 국문과에 들어간 것까지 계산에 넣으면 번덕인지 변화인지는 자못 알록달록하다.

정말이지 왔다갔다 했다. 시론을 썼다가는 곳 얘기에 홀리고 옛 이야기에 기울이던 귀로는 어느새가 신화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겨울엔가 두메마을이 그리고 그곳 사람들 삶이 내 책이 되고 또 책상이 되어 있었다. 신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귀향길 같다고 생각했다.

시에서는 인간감정이며 정서의 저 피안을, 그 숨겨진 속을 읽는 데 버릇이 들어 있었다. 그것도 한국인의 심혼의 표정(表情)을 바라는 몫이 매우 컸다. 시는 드러난 말로 안 드러난 것을 더 많이 진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고집이 매우 완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읽기는 시인보다 훨씬 더 속깊은 말을 이끌어내야 하는 또 다른 시짓기라고도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게 이른바 '원형'이나 '무의식(無意識)'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아니 순서를 맞추어서 이야기하자면,

무의식에 대한 관심이 먼저고 원형에 대한 관심이 그에 뒤따랐다고 해야 할 테지만 어쩌면 그 둘이 작당해서 동시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도 모른다.

거의 거의 같은 무렵에 말리노프스키와 칼 융과 그리고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도움을 손길을 뻗쳐주었다. 조금 뒤쳐져서 칼 케레니와 S.K. 랭거가 원군(援軍)이 되어주었고 조금 더 뒤로는 영미의 제의학과(祭儀學派)들이 힘을 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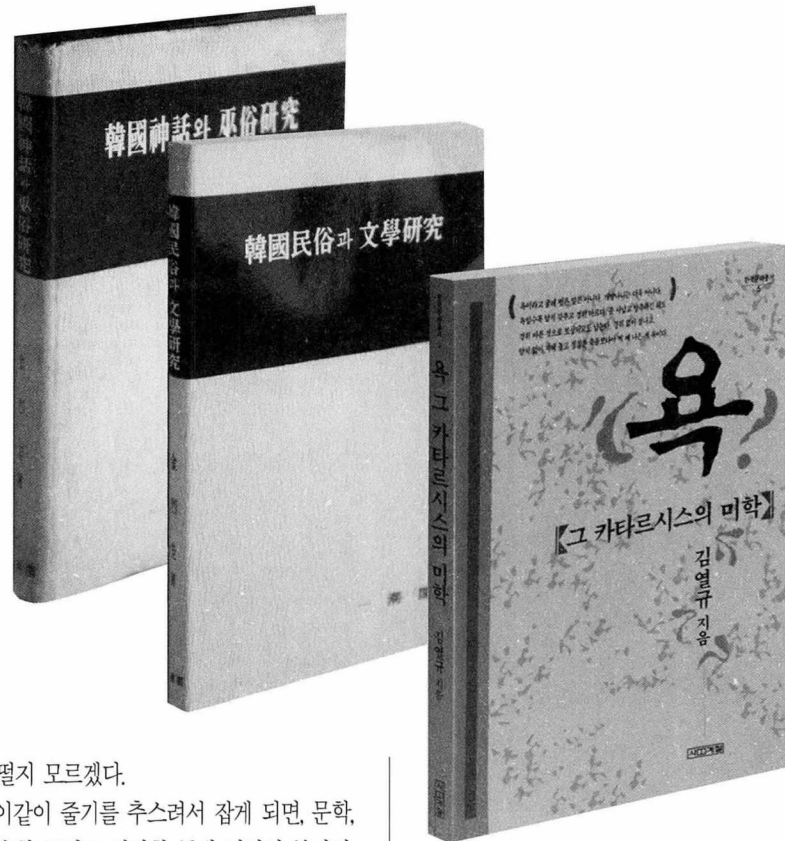
그래서 원형이란 고리와 그에 어울린 무의식이란 매듭이 문학과 민속과 신화를

원형과 무의식의 상징성 등에 관한 관심은 점차 내면적으로 시선이 넓어지면서 조금씩 세분화되어갔다. 그것은 어쩌면 샤머니즘 내지 무속신앙이 지닌 복합성이 절로 초래한 것인지 모른다. 곳곳을 열썬대다 보면 신명·원한 같은 한국인다운 심성의 깊이나 깊은 층에 가라앉게 된다.

한데 엮어서 그런대로 하나의 무늬로 된 피륙 한 조각을 짜게 해주었으니, 그게 곧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일조각)였다.

그것을 지금 회고해보면 미숙한 대로 문학과 민속 그리고 신화를 꿰결 하나의 텍스트의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포착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된다. 비록 문화의 장르가 다르고 학문의 분과가 다르다고 해도, 적어도 그 당시 학문의 관습으로는 그렇게 달랐다고 해도, 그 사이에 하나의 맥이 혹은 울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것이 지닌 또 다른 의미를 뻗뻗함을 무릅쓰고서 말해도 좋다면, 발전된 오늘 속의 미개 혹은 오늘까지 살아남은 묵은 어제의 잔재(殘滓) 등으로 비치기 쉬운 민속이, 문학과 문화의 불변할 기층으로서 재평가될 기틀을 잡아보는 일이었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이같이 즐거움을 추스려서 잡게 되면, 문학, 민속학 그리고 신화학 등에 걸쳐서 분산된 관심의 가닥은 그런 대로 무엇인가 일관된 것을 내장(內藏)하고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들테면 시에서 비롯된 초발심은 그 자체의 당연한 발걸음의 뻗어남으로 그들 가닥이 갈라져갔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아니면, 하나의 구심점에서 원심으로 가닥저간 갈래들은 방사전상으로 뻗어가는 그 여세로 무슨 제법 등근 영토의 외연(外延)을 형성한 것이라고도 우기고 싶은 것이다.

에당초, 시쓰기와 시읽기가 짝지워진 것은 별로 흠잡을 데가 없을 것이다. 시를 많이 읽을수록 시를 스스로 좀더 낫게 쓰게 되리라는 기대 자체는 나무람받을 일은 아닐 것 같다. 다만 시 읽기가 그만 시를 쓰고자 한 초발심을 집어삼켜버린 것은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 일이다.

계몽적 오부작 기획

원형과 무의식의 상징성 등에 관한 관심은 차츰 내면적으로 시선이 넓어지면서 조금씩 세분되어갔다. 그것은 어쩌면 샤머니즘 내지 무속신앙이 지닌 복합성 또는 다양성이 절로 초래한 것인지도 모른다. 곳곳을 열썬대다 보면, 절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신명·원한 그런 한국인다운 심성(心性)의 깊이나 깊은 층에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귀신·도깨비 그런 불가시(不可視)지만 불가무시(不可無視)의 것들과도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학문적인 전문서적으로는 제2작이 될 《한국신화와 무속연구》(일조각) 및 《한국문학사》(탐구당)를 이어서 조금은 계몽적이라 해도 좋고 대중적이라 해도 좋은 차원에 걸쳐서 오부작(五部作)을 마음속으로 기획하게 된 것이다.

《한국신화와 무속연구》는 전작인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의 속편 같은 성격을 갖추고 있다. 상고시대 신화를 포함한 한국의 신화가 샤머니즘의 각종 이데올로기 및 의식(儀式)의 언어적 표현이란 명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국내판 제의학과(祭儀學派)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계몽적인 오부작이란 신화와 도깨비, 원한 그리고 신명 및 아리랑을 주제로 한 책이 될 것이라고 미리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한국인의 심성 및 예능 그리고 문학 등의 메타 구실을 하고 있으리라는 계산이 미리부터 작용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도깨비·원한·신화

예술가의 집념과 드라마틱한 생애

어빙 스톤의 《르네상스인 미켈란젤로》(전3권)를 읽고

조용진 · 서울교육대 교수

그리고 신바람(신명)이며 아리랑을 각기 한국인의 심성의 원형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도 기대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다섯가지 주제에 관한 작업은 신나는 일이었다. 비교적 단시일 내에 책이 엮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신남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면서 정말이지 차츰 '한국인'이 되어간다는 생각에 은근히 취할 수도 있었다.

작업을 하는 동안에 '내가 도깨비에 미쳐간다면' 하는 환상에 젖는 것조차 즐거운 일이었다. 아리랑을 더듬어 전국을 돌아치면서는 나의 목소리가 제2의 변성기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실감했을 정도다. 한국학을 한다면서 왜 진작 '소리'를 위한 장돌뱅이가 못되었는가 하고 더러 자탄하기도 했다. 아무튼 그 오부작은 지적인 충족감보다는 감정적 충족감을 훨씬 진하고도 도수 높게 경험하게 해주었다. 그 주제, 소재, 충동적인 영감, 작은 암시 등에 노상 이취(泥醉)해서 살다시피 할 수 있었다. 정말이지 그것은 곤드레만드레의 경지였다.

내 오랜 방향이 실 곳

그러면서 나는 차츰 나 자신을 위한, 정신적이라기보다 심정적 국적(國籍)을 얻어갈 수 있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한편 유형유물들, 암각화며 왕관이며 청동기며 토우 또 그밖의 조형물이나 미술품을 대상으로 삼은 신화학(神話學)을 진척시켜나갔다. 이를테면 그림이나 미술을 소재로 한 신화론인 셈이다. 신화(神話)의 신화학(神話學)이 기획된 셈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영역을 신화(神話) 및 사머니즘과 엮어서 좁게는 동북아, 넓게는 범시베리아 지역과의 비교를 하는 쪽으로 지금 당장 학문적 관심은 쏠려 있다.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서 한두 해 안이면 동북아 비교신화학 차원의 신화론이 간행되리라고 은근히 바라고 있다.

내 오랜 방향이 거기 와서 발을 쉬게 되면 그 다음 기획은 그때 가 봐야겠지만, 기왕 '욕(辱)'을 위한 최근 간행물이 그렇듯이 또 다른 좀 속편한 그러고도 그전 오부작만큼이나 신나는 기획을 하게도 될 것 같다. ❖



미켈란젤로 작 <운명의 여신>.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도시 피렌체, 무역과 금융으로 부를 쌓아 세력을 키운 메디치가의 사람들은 예술을 사랑하여, 음악가·문필가와 미술가들을 후원했다. 때 맞춰 등장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 알베르티 등 만능의 천재들은 이전의 — “중국인들이 우리를 보았다면 이 세상에서 이주 없애버려야 할 인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그들 자신조차 비판할 정도였던 — 유럽문화를 크게 진흥시켰고, 나아가 역사의 키를 서세동점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르네상스인 미켈란



젤로》(성로 옮김)는 이 천재들 중에서도 단연 예술가로서 두각을 나타낸 미켈란젤로의 생애와 그 시대, 주변의 이야기를 함축하여 담고 있다. 20세기까지도 인류사상 최고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의 예술가로서의 집념과 드라마틱한 생애를 리얼하게 그려냈다. 그리스 조각가 프라시텔레스의 말을 인용할 정도로 고전에 밝은 지식이 있었던 동료 도제들, 후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 공, 교황 율리우스 2세, 금욕주의 수도사 사보나롤라, 신성 로마제국의 카를 5세 ...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이들 사이에 펼쳐지는 역학관계를 눈에 보이듯 그려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1인 중심의 전기소설을 뛰어넘는 역사소설로서 기억되도록 한다.

그러면서도 읽는이에게 자칫 평범한 삶에 안주하고 미는 초라한 자신을 성찰케 함으로써, 한 특수한 인간의 인생역정이 아닌 인간생활의 보편성에 대한 원리를 일깨워 준다. 그런 면에서 '르네상스인 미켈란젤로'라는 제목이 마음에 든다. 이 시기의 유럽은 인본주의가 번져 빛나는 문화를 꽃피우면서도 종교개혁, 새로운 사상의 대두와 갈등으로 혼란스럽고 역동적인, 역사상으로 중요한 시대였다. 이 시기에 태어난 미켈란젤로는 90세까지의 생애에 교황과 메디치가에 대한 봉사를 끝없이 요구당하면서도 언제나 예술의 자유를 추구하고 싸웠다. 그의 예술은 모두 이와 같은 인생의 고뇌와 사회에 대한 저항, 신앙의 미적 형상화였으므로 미켈란젤로야말로 진정한 '르네상스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작을 써낸 작가 어빙 스톤도 결코 이 책에서 자신이 다른 천재들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독자는 어찌보



조용진 교수.

면 천재들의 잔치에 초대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초라함을 미처 발견할 틈을 찾지 못한다. 무심히 쓴 단어나 문장이 단 한군데도 발견되지 않는 철저함과 함께 조각과 연모와의 상관관계, 인물·건축·복장·시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작가의 치밀한 구성력에 힘입어 읽는이의 정신적 긴장감을 작가만큼 끌어올려 주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이 잘 분화된 명사가 많이 사용되어 지적인 독서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일이지만, 이를 충실히 옮겨 퇴락해가는 국어에 품격을 새로이 수혈해 준 역자에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단, 미술의 기법과 재료에 대한 체험적 지식의 양이 작가가 가진 상상력·구성력·고증지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그 당시 미술에 적용되던 도상학적인 지식까지 동원되었더라면 독자에게 훨씬 더 큰 지적 행복감을 주었으리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은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누린 인간적 고뇌와 환희(Agony and Ecstasy)를 자신의 것과 저울질해보는 일이다. ❖

카치/A5신/각 328면 내외/각 7000원